

은혜와 진리소식

2026년 5월 17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961호

1982년 8월 8일 창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신유의 은혜를 베푸시며, 하루하루

평안히 잠들고 또 새로운 날을

상쾌한 마음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 김태련 -

욕심이 생겨 1990년에 고향언니와 동업하여 강화도에 2천 평이 넘는 큰 양식장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4년 동안 거금을 들여 만들어서 1995년에 준공하고 돔 양식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인간적인 욕심으로 경제활동에 전념하는 동안 연이어 재난이 닥쳤습니다. 폭우와 폭설 등 천재지변에 이어서, IMF 사태로 주거래 은행이 퇴출되면서 그 여파로 수십 억원의 손실을 입고 결국 양식업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 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욥기 1:21)라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낙심하지 않고 꿈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 후 딸 넷 모두 박사, 변호사, 의사인 전문직 사위와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 중 셋째 딸은 국비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미국 명문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사위와 함께 학위를 받아서 실리콘 밸리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손녀가 외무고시에 합격하고 손녀사위와 함께 영국과 스위스에서 각각 외교관으로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모두 함께하시고 보살피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19년 봄에 저는 공기 좋고 조용한 곳에 가서 살고 싶은 마음에 작은 손가방 하나만 들고 아무 전철이나 탔는데 4호선 전철이었고, 무작정 내린 곳이 안산 상록수역이었습니다. 눈에 띈 부동산 중개소에 들어가서 마침 비어 있는 셋집을 구하여 그날부터 들어가 살았습니다. 빈 몸으로 왔기에 당장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는데, 신기하게도 “하나님, 제가 이것이 필요합니다.”하고 기도하면 금방 밖에서 제게 필요한 그것을 찾고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야 하는데’ 어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교회가 없을까 기도하며 찾던 중에 어떤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조용목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은혜와진리교회에 다니는 권사님이셨습니다. 얼마나 반갑고 또 고맙던지요, 전에 설교말씀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고 존경하던 목사님이셨기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시는 당회장 조용목 목사님을 뵈니 저를 위해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상하신 손길을 느끼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은 저를 위해 신실하고 사랑이 많으신 구역장님을 만나게 해 주셨고, 그리고 구역의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매일 감사가 넘치며 주 안에서 행복한 생활을 하게 해 주십니다.

눈이 계속 불편하여 안과에 갔더니 황반변성이라며 서울에 있는 큰 안과병원에 가라고 하므로,

가서 검진을 받고 수술 날짜를 잡고 돌아왔습니다. ‘내 나이가 아흔인데, 한쪽 눈은 잘 보이니 이 한쪽 눈으로 그냥 살면 되지’ 했다가, 아버지 앞에 돌아온 탕자처럼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잘한 일이 없다는 생각에 ‘하나님 아버지, 저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울며 기도하다가 잠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잠에서 깨어 TV를 켜는데, 이상하게도 전과 달리 화면과 글씨가 밝게 보였습니다. 왜 그럴까, 궁금한 마음에 안과에 갔더니 황반변성 현상이 없어졌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크게 웃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하고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하루는 화장실에서 양치질하고 나오다가 넘어졌습니다. 어깨가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어깨뼈가 금이 갔다며 ‘김스’를 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나중에 하겠다고 하고 팔걸이만 한 채 집에 돌아왔습니다. 마침 서울에 사는 아들이 보러 온다기에 안산에서 전철을 타면 한번에 가는데 내가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가서 아들 가족과 점심을 먹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아픈 어깨 쪽의 손이 바르르 떨리면서 하나님께서 낮게 해 주실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손은 팔걸이에 의지하고 또 한 손에는 머느리가 짜준 음식과 손가방을 들고서 전철역 에스컬레이터를 타려고 한 발을 올려놓는 순간 그만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정신을 잃었다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괜챿냐고 묻는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보니 에스컬레이터 맨 아래 칸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녁에 낮에 있었던 이 일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그렇게 심하게 넘어졌는데도 어떻게 다친 데가 없이 멀쩡하게 걸어서 집에 왔을까’ ‘아, 하나님이 또 나를 지켜 주셨구나’ 하는 생각에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고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상하게 몸이 가뿐했습니다. 아파서 울리지 못하던 팔이 다 나아서 손이 위로 번쩍 올라가고 아프지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받고 보니 간증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곧장 아들에게 전화하여 어제와 오늘 아침 있었던 일을 말해주고 꼭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하나님을 신앙하는 생활을 하라고 신신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역장님에게도 연락하여 구역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간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할렐루야! 저의 노년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의 건강을 지켜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은혜와진리교회에서 말씀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기도하여 응답받으며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는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는 1936년생으로, 은혜와진리교회 안산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신앙생활을 있는 권사입니다. 저는 불교신자였던 제가 교회에 처음 나갔던 1978년 여름의 그 주일을 잊지 못합니다. 그 후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되어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해 초여름에 부산에서 사업을 하는 저에게 사기를 벌인 여자를 찾으러 서울에 올라왔다가 친척 아주머니 집을 몇 십년 만에 방문하였습니다. 그 아주머니와 아저씨 부부가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성격이 과격하고 성질이 고약하기로 소문났으며 온갖 미신을 다 좇던 분이었는데 매우 온순하고 자상한 성품으로 변하고 신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고, 아주머니의 인도로 교회의 예배에 처음 참석하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미용비누와 세제 등 생활용품 제조하는 대기업의 부산총판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업장의 사무실로 임차하여 쓰던 집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저는 법적인 다툼을 벌이는 동안 자주 상경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문제가 잘 해결된 후에 저의 교만함을 회개하고, 교회생활을 열심히 하기 위해 저 혼자 1남 4녀 자녀를 데리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 성북동에 살면서 저는 어린 자식들의 의식주를 위해 이불 장사와 옷 장사를 하였습니다. 살림살이가 어렵고 몸은 힘들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양하게 체험하면서 몸의 피곤함을 잊고 사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과외공부를 시키지 못하는 형편임에도 아이들이 전교1등 자리를 놓치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면서 잘 자라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이 번창할 때에 그만

구역공과

제3권 (9단원) 성도의 풍성한 삶

(제50과) 기도 생활의 복

- 본문 : 빌립보서 4:4-7
- 요절 :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빌 4:6)
- 찬송 : 482장(새찬송가 364장), 484장(새찬송가 365장)

우리는 성경에서 기도 생활을 격려하는 말씀을 많이 대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마 7:7~8)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읽고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기도할 용기와 응답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합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해 주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성도가 기도를 통해서 받게 되는 복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1.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허물과 죄를 용서받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전혀 죄와 무관한 생활을 하지는 못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보다 이 세상 유혹에 따라 살아감으로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약 1:14)는 말씀과 같이, 옛사람의 소욕을 따라 행한 결과입니다.

한편으로, 성도가 죄된 생활을 계속하게 되면 점차 그 심령이 황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범했을 때에 지체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자복하여 용서함 받고 다시금 정결한 심령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요일 1:8~9)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인정을 받을 만치 모든 면에서 본이 되는 사람이었으나 그 역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일로 무서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솔직히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눈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사죄의 은총을 받게 되었습니다(삼하 12:1~15). 이로 인해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시 32:5)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범죄하였을 때 변명하거나 숨기려 하지 말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와 회개함으로 다시금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시 51:12).

2. 우리는 기도로써 삶의 시련을 이기게 됩니다.

갈릴리 바다는 평소에 잔잔한 호수와 같다가도 갑자기 온 바다를 뒤집어 놓는 듯한 풍랑이 일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도 예상치 못했던 환난과 시련의 풍파를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번창하던 사업이 갑자기 기울거나, 직장에서 실직을 당하거나,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화목하던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등 만만찮은 시련이 언제 다가올지 알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어떤 환난과 시련의 폭풍이 엄습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 뜻대로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방의 의인 욥의 경우가 이를 말해 줍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욥 1:8)는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으나 한 날에 열 자녀를 잃고, 모든 재산을 약탈당하고, 그의 몸에는 악창이 나서 재 가운데 앉아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는 시련을 만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는 복을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서 근심과 두려움을 제하여 주시고, 마침내 고난을 유익으로, 반목을 화평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환난을 복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 4:6~7)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환난 중에 깨어 기도함으로써 인생 항로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시련을 능히 이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3. 우리는 기도할 때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서 항상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바람직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간혹 신앙의 활력을 잃고 소극적인 자세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는 성도가 기도 생활을 등한히 하는 데에 가장 큰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아서 잠시라도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성도가 기도를 쉬게 되면 그 영혼이 갈급하여 메마르고 무기력한 신앙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쉬지 않고 기도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성도는 성령님과 의 끊임없는 교통을 통해서 날마다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받게 되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늘 푸르고 시절을 좇아 열매를 맺듯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 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기도의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물려드는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각색 병자를 고치시느라 식사하실 겨를도 없으셨지만(막 6:31), 분주한 하루를 보내신 후 고요한 밤시간이나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서 기도 하셨습니다(마 14:23, 막 1:35).

이처럼 예수님께서 기도를 쉬지 않으셨다면 하물며 우리가 시간 없음을 핑계삼아 기도 생활을 게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다른 모든 일에 우선하여 먼저 기도하는 데 시간을 내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어 달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은총이요 특권입니다. 기도하는 한 우리에게 절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생활에 힘씀으로 능히 세상을 이기며, 환난을 극복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늘 은혜와 생동감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교 대한 은혜와 진리교회

-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인양로 193 T. 031-443-3731~2, 446-9184
- 수원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T. 031-225-3731, 234-3732
- 안산 : 안산시 화랑로 303 (고잔동) T. 031-486-3731~2
- 과천 :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 02-502-3731
-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 031-318-3731~2
- 광명 : 광명시 소하로 109번길 13-18 T. 02-894-3731
-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 (청천동) T. 032-507-3731~2
- 부곡 :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 031-462-3731
-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 031-716-3743, 716-7832
-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222길 5 T. 02-2632-3731
- 산본 :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10-18, 6층 T. 031-395-8227
-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 032-469-3742
-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3번길 6 (송내동) T. 032-652-3731~2

-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 (중산동) T. 031-906-3731
- 시화 :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 031-497-3732
- 영종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 031-205-3732
-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 6 (인창동) T. 031-567-3731
-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 031-422-9200
-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 031-298-3739
- 전원(수양관,본관) T. 031-227-5992~3, 227-3739
-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 031-985-3731~2
-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 031-662-3731
- 안중 :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44 T. 031-684-3731
-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 041-555-3731
- 전주(평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 063-225-3731
- 양주 : 양주시 평화로 1416번길 34-26 (덕계동) T. 031-863-3731
-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 033-764-3735
-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 02-459-3731
-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 12번길 39-11(관동동) T. 055-312-3731
-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 031-337-0688
-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 48 (운서동) T. 032-751-3731

-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남로 41번길 30 T. 042-471-3736
- 광주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마루들길 168 T. 031-763-3720
- 남양 : 화성시 시청로 102번길 56 (남양리) T. 031-355-3729
-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 053-522-3731
-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 041-667-3731
- 울진 : 수원시 장안구 하북로 55 (천천동) T. 031-271-3731
-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 1길 26-71 T. 031-8015-3731
-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채운동) T. 041-353-3731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420 (보람동) T. 044-862-3732
-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 063-239-1004
-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로 2572 T. 033-463-1312
-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 46-5 (황성동) T. 054-772-7867
-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 39번길 21-18 T. 041-534-3731~2
-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용산동) T. 043-848-3731
-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 031-662-3731
- 산서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 2 (쌍계리) T. 063-351-7518
-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 055-752-6675
- 은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 041-533-3731